

News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3.7조 ↓ ...가계대출 2017년 2월 이후 첫 감소

매일경제

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38.5조원으로 4월 말보다 3.7조원 줄었다. 신용대출이 급감하면서 지난달 가계대출도 3조원가량 줄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7.8조원으로 4월 말보다 3.5조원 줄어들었다.

하나·농협 등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재개했지만...펀드 판매 위축 현실화

뉴스1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우리은행 등이 판매가 중단됐던 ETF 펀드 등 일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다시 팔기로 했다. 다만 종류는 이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지난 10일 금융당국의 녹취·속려제도에 대한 행정규칙이 늦게 나오면서 금융권은 해당 상품 판매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

코인 급락하자... 은행 단기성 자금 한달새 5조 빠졌다

파이낸셜뉴스

1일 5대은행(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요구불예금을 포함한 단기성 자금은 잔액은 713.1조원으로 전월보다 5.2조원 가량 감소.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인 가격 하락으로 일부 은행의 요구불 예금이 감소했다"며 "특히 신탁자금 중 증권사 자금이 IPO 이후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1분기 은행 BIS비율 16.73%... 코로나에도 건전성 유지

한국금융신문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16.73%. 씨티은행이 가장 높았고, 카카오뱅크와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순금감원 관계자는 "3월 말 기준 은행들은 대출자산 등 위험가중자산 증가에도 순이익 확대와 증자 등으로 자본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

네이버, 보험 진출 급물살 타나...'정체성' 유권해석 이달 완료

뉴스핌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네이버 등 플랫폼 비즈니스 업체의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가 모집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빅테크의 진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 현대해상 지분 일부 처분

조선비즈

현대해상의 3대 주주였던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는 전일 현대해상의 주식 93만9711주를 장내 매도. 지분율은 기존 6.0%에서 4.95%로 1.05%포인트로 하락. 블랙록은 주식 처분 사유를 "투자자금 회수 목적"으로 밝혔다. 지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블랙록은 여전히 현대해상의 3대 주주 자리를 지키게 됐다.

미래에셋증권, 발행어음 상품 판매 시작

조선비즈

미래에셋증권이 발행어음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금리 조건은 다른 증권사와 유사하고, 초도 물량은 약 3000억원 규모. 미래에셋증권의 판매 예상 금액은 약 3000억원이다. 미래에셋증권의 자본금 규모가 9조70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적은 물량으로 평가 받는다.

한국거래소, 금융위와 증권사 공매도체계 전반 현장점검

이데일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일 금융위원회와 국내·외국계 증권사 2사에 대해 공매도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장점검에 참여한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별다른 불안심리나 이상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언급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